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8. 3. 15(금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해외건설 지원과	담당 자	• 과장 이상현, 팀장 이해선, 사무관 이기림 • ☎ (044) 201 - 3528	
보 도 일 시		2018년 3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14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한-미얀마 인프라 협력, 팀 코리아[Team Korea]로 개척한다

- 김현미 장관, 3.14~15 미래의 인프라 시장인 미얀마 방문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우리 기업들의 전방위 수주지원을 위해 3월 14일부터 이틀간 미얀마를 방문하여 인프라 외교를 펼쳤다.

○ 이번 대표단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해외건설협회 등이 함께 하였다.

□ 오랜 군부독재와 경제제재(특별제재대상, SDN)로 성장이 멈추었던 미얀마는 '16.4월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·경제 상황이 안정*되며 신남방 지역의 새로운 시장**으로 떠오르고 있다.

* '16.9월 경제제재 완전 해제 : 기업간 합작 프로젝트 가능, 달러거래 완화
'16.11월 GSP 대상국으로 지정, 약 5,000여개 품목 관세혜택

** 경제성장률('18.6 IMF 발표) : '16년 5.9%, '17년 6.7%, '18년 6.9%

○ 미얀마는 중국, 인도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 아세안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이자, 미국·중국·인도의 안보·경제 전략의 요충지로서 가스·석유·옥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.

○ 특히,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법 개정('18.8), '18~'30 지속가능 발전계획 발표('18.9) 등 경제 발전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개혁 의지도 강하여 진출을 적극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.

□ 이에, 한국 정부는 유상차관(EDCF)으로 ‘우정의 다리’ 건설을 지원 (‘18.12월 착공)하는 등 **미얀마 재건 인프라 프로젝트**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**적극적인 외교**를 펼치고 있다.

* (규모) 2.9km, 1.68억\$, (기간) 51개월, (발주처) 미 건설부, (시공사) GS 건설

○ 이번 대표단 파견도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으로, 김현미 장관은 잠재력이 풍부한 **미얀마에서 건설부와 교통부 장관을 만나**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다.

□ 김현미 장관은 우 **한 쯔(U Han Zaw) 건설부 장관과의** 면담에서,

○ 양국의 대표적 인프라 협력사업인 한-미얀마 우정의 다리 착공을 축하하며, 우정의 다리가 연결되는 **달라(Dala)지역***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**선제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**을 조언하였다.

* 저개발 지역으로, 우정의 다리 건설로 경제수도인 양곤 중심부와 연결 예정

- 또한, 우리나라에 축적된 신도시 개발 경험을 강조하며, LH 등 전문기관과 **우리 건설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**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○ 현재 계획 중인 **한·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**는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을 돕는 것*은 물론, 미얀마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 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였다.

* LH 사전 수요조사 결과, 85개 한국 기업이 입주 의사 표현

[한-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개요]

- 사업위치 :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 (양곤시계 북측 10km 지점)
- 사업면적 : 555Acre(약 680천평) ※ 여의도의 약 78%
- 사업비 : **약 1,311억원**
- 사업기간 : 2019년 ~ 2024년
- 시행주체 : LH컨소시엄과 미얀마 정부가 공동으로 JV 설립추진

* LH 40%, 글로벌 세아 20%, 미얀마 건설부 40% (자본금 323억원)

** 미얀마 건설부 : 5\$/m² · 50년 조건으로 토지 현물출자(자본금화)

- 금년 사업자 선정 예정인 양곤 고가도로 1단계 건설 사업*(양곤 시내 내부 순환도로 4차선 건설 및 30년 유료운영)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
* 총 43.5km(1단계 27km, 2단계 16.5km), 1단계 사업비 12억\$, PPP 방식

- KIND가 아세안 지역 1호 투자사업으로 검토 중이며, 도공, GS, 대림, 롯데, 포스코, 대우가 팀 코리아(Team Korea)를 구성하여 참여하였다.

□ 우 탄 신 마웅(U Thant Sin Maung) 교통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,

- 유무상 원조를 통한 인프라 사업 지원의지를 확인하고, 양국간 교통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하며,
- 한-미얀마 비자면제 조치('18.10.1) 이후 증가된 교류를 감안하여 항공편이 증편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

* '18년 미얀마 방문 한국인 : 전년(65,829명) 대비 10.7% 증가한 72,852명

** 국가별 미얀마 방문객 순위 : 중국 > 태국 > 일본 > 한국 > 미국

□ 또한, 김 장관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청취하고 향후 정부도 정책적,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“미얀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로, 향후 인프라 외교를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”면서,

- “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, KIND 활용, 펀드 조성 등 PPP 사업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이성훈 사무관(☎ 044-201-352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